

항소하면 형량 준다? ... 천만에, 항소심 재판 깐깐해졌다

광주고법, 성범죄·간혹범죄 1심보다 엄격한 범집행 잇따라

성범죄나 살인 등을 저지른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부의 엄격한 기준이 선고 형량에 반영되고 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거나 1심 재판부보다 오히려 형량을 높이면서 '형량 줄이기'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항소도 상당수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된 광주법원 301호 법정. 어린 의붓딸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

라 성장하고 난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전도(47)씨는 1심 형량(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5년 신상 공개 5년 등의 항소심 결과에 고개를 숙였다.

A씨의 부인이자 딸의 친어머니가 직접 법정에서 출석해 "다시 가정을 꾸리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 가족들까지 선처를 바라지만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선처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80대 노인도 재판부의 엄벌의 지지를 비켜가지 못했다. 11세 여아를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으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박모(85)씨는 자신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고 죄가 가볍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가석방으로 출소, 가석방 기간 만료 한 달여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전처가

광주고법 최근 판결 내용

- ▶살인죄 가석방 중 다시 살인 50대
 - 징역 30년 ... 89세까지 사실상 영원히 사회서 격리
- ▶의붓딸 성추행·성폭행 40대
 - 딸 친어머니 선처 호소에도 1심보다 높은 5년 선고
- ▶11세 여아 성추행 80대 노인
 - “피해 회복조치 없고 죄 가볍지 않다” 항소 기각

바람을 피운다며 살해한 안모(59)씨는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지 지난 2011년 8월 가석방된 뒤 지난 10월 자신의 내연녀 역시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살해했다. 안씨는 재판부에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범행 이전과 이후 사리분별력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마스크로 씌우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2심 선고대로라면 안씨는 89살에 출소, 사실상 사회와 영원히 격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 변호사는 "요즘 사회분위기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항소심의 형량이 1심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는 현실에서 연륜이 있는 판사들이 고민 끝에 내리는 결정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40m 높이서 작업 ... 강풍에 추락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40대 인부 경찰, 안전규칙 준수 등 조사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지붕 패널 교체작업을 하던 40대 작업 인부가 강풍에 떠밀려 숨졌다.

18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30분께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공장 옥상에서 10~15kg 무게의 철제 지붕 패널(가로 10m·세로 76cm)을 옮기던 광양제철 하청업체인 H기업 직원 김모(45)씨가 강풍에 떠밀려 40m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작업 중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으로 난간까지 6~7m 가량 밀려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이 지역엔 순간 최대풍속 7.6m/s의 바람(웃길이 팔력이는 정도의 세기)이 불고 있었다.

함께 작업했던 직장 동료는 경찰에서 "패널을 옮기던 중 갑자기 거센 바

람이 불어 다급히 앉았는데, 바람에 휩쓸린 패널이 김씨의 등을 치며 계속 떠밀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몸무게가 60kg이라고 가정하면 순간 최대풍속이 초당 20~25m의 이상으로 불었을 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H기업 측은 강풍 예고시 대응 메뉴얼은 없었지만 일기에보를 확인한 뒤 작업진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공 작업의 특성을 감안한 안전 규칙 및 작업 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기상청은 40m 높이에서는 지표면과 달리 장애물이 설치돼 있지 않아 바람 세기가 더 강하고 바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골짜기 바람'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데, 고공 작업 시에는 이같은 점을 고려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주먹 친 공무원들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원 100여명이 18일 오후 서구 화정동 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교공무원 근무수당 차별 폐지 등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학의 前 차관 '별장 성접대' 확인

경찰청 수사팀, 건설업자 윤종천 등 18명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

건설업자 윤종천(52·구수)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청 수사팀은 윤씨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팀은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경기도 일산 소재 모 대학병원의 전직 병원장 P씨 등 일부 유력인사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건설업자 윤씨는 고위 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지위를 거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불법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장 성접대'라는 보기 드문 접대 행위로 확인됐다.

18일 경찰청 수사팀에 따르면 윤씨는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와 별장과 제주 등지에서 고위직을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 기업인, 교수, 대형 병원 장 등 각계 인사들에게 여성들을 불

어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

윤씨는 평소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 아 알고 지내던 여성들을 성접대에 동원했다. 성접대를 받은 공무원, 사업가 등 남성들은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성들은 윤씨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받고 몇몇 남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반면, 성접대를 한 장본인인 윤씨

뿐 아니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성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대다수 남성 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중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여성들의 진술 외에도 윤씨의 피고용인,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성접대 의심 장소 출입 기록, 윤씨와 성접대 대상자들 간 친분 관계가 나타난 윤씨의 수첩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성접대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동영상은 윤씨가 여성 사업가 A(52)씨로부터 빌린 벤츠 승용차에 보관됐다가 A씨의 부탁으로 차량을 회수하던 남성들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남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영 상 원본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훈련시킨 동물로 다른 동물 학대하면 처벌

광주지검, 풍산개 주인 기소

훈련된 동물을 이용해 다른 동물을 학대해도 처벌 받는다. 자신의 풍산 개를 자극해 고양이를 잔인하게 물어 죽이게 한 개주인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 2부(김현철 부장검사)는 1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모(40)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순천계 담양군에서 자신의 풍산개

를 풀어놓아 주인 없는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개이를 부르며 "(고양이를) 물어, 옮겨!"라고 독려해 고양이가 뼈가 으스러져 죽게 했다. 박씨는 풍산개종 보존협회 개시판과 포털 사이트에 영상을 올려 비난을 받았다.

동물복지협회 등 동물단체는 박씨를 고발하고 회원 5136명의 인터넷 서명과 32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보성 70대 비브리오 양성 판명

전남도는 18일 이모(72·보성군)씨가 울머 첫 비브리오패혈증 양성 환자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비브리오패혈증 의심증세를 보인 지 5일만에 양성 환자로 최종 판명됐다. 이씨는 평소 알콜성 간경화 등의 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 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정밀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공무원·공익 목적 말다툼 끝 몸싸움

공무원과 공익원이 심한 욕설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할 구청이 진상 파악에 착수.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30분께 북구 일곡동 남도향토 음식박물관에서 박물관 소속 공무원 A씨와 공익요원 B씨가 업무 과정에서 시비, 욕설을 주고 받는 등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

○북구는 해당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 등 처리 방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A씨는 "주먹다짐 한 적이 없으며 말다툼만 했다.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해명.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건물매매

순천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 대지 143평, 건물 480평, 2012년도 신축
- ▶ 5층 건물(1층 82평, 2~5층 100평)
- ▶ 감정가/시세 - 24억원
- ▶ 임 대 - 보3억원에 월1,600만원 (임대 중)
- ▶ 대 출 - 14억원(이자 월560만원)
- ▶ 매매가 - 24억원
- ▶ 수 입 - 7억원 투자에 월 1,040만원
- ▶ 주인 직매함, 010-3605-5000

1. 시공전 / 단열베이스가벽시공 2. 단열베이스가벽 / 트라이슈머시공 3. 트라이슈머 방습시공 4. 시공 후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시험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차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탤런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